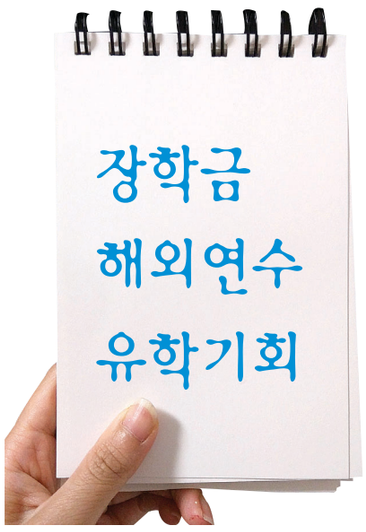


“우리 승가대학으로 오세요”

조계종 승가대학 · 대학원, 학인 모집 시작

다양한 특전으로 입학 독려
장학금 기본, 아이패드 지급
사찰음식 · 다도 등 자격증도
“교육 · 복지 질 높이는 효과”

조계종 전국 사찰 승가대학과 대학원이 학인 모집을 시작했다. 빠른 곳은 1월 중순경 마감과 면접이 진행되며, 대부분 3월 개강에 맞춰 전형 일정이 이뤄진다. 눈길을 끄는 것은 사찰 승가대학과 대학원이 다양한 특전을 내세워 학인 스님들의 입학을 독려하는 현상이다. 이는 최근 2~3년 사이 나타난 현상으로 올해에도 두드러진다.

사미니 승가대학은 대부분 구정 이전 학인 접수를 마감하고 면접시험 등을 진행한다. 봉녕사 승가대학(학장 도혜)은 1월 16일 원서를 마감하고, 17일 면접을 실시한다. 입학생에게는 묘엄불교문화재단 장학금 혜택을 비롯해 △사찰음식 강의 및 실습 이수 시 수료증 수여 △다도 강의 이수 시 다도 자격증 수여 등이 특전으로 주어진다.

16일 원서를 마감하는 운문사 승가대학(학장 일진)은 일본 하나조노대학 · 대학원, 북경 청화대락 인문계열 · 태국 국립 마하출라롱콘대학의 해외교류대학 · 대학원 입학을 특전으로 내세웠다. 또한, 2학년 수료 후에는 대만불교 연수와 4학년 학기 중에는 마하보디교육원 호스피스 교육이 진행된다.

동학사 승가대학(학장 보련) 역시 16일 원서를 마감하고 17일 면접고사를 본다. 동학사는 요가, 사군자, 서예 등을 특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입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 △입학금 면제 △전 학년 교재 제공 △졸업여행비 지원 △병원비 지원 △성지순례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스마트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청암사 승가대학(학장 지형)도 17일 면접을 진행한다. 전원 장학금과 아이패드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태극권 관련 자격증도 취득이 가능하다. 전국 10여개의 사미 승가대학은 3월 개강에 맞춰 전형이 이뤄진다. 금정총림 범어사 승가대학(학장 용학)은 3월 22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하며, 전 학인 아이패드 및 전자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총림 등에 설치된 율학승가대학원을 비롯한 전문교육기관들도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다. 금정총림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원장 영명)은 2월 6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하며,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율학승가대학원(원장 덕문)은 2월 11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원장 적연)은 1월 16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입학생에게는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고 전문과정 2년 졸업 후 조교수 자격을, 연구과정 3년 졸업 후 부교수 자격을 부여한다. 운문사 한문불전대학원과 보현율원(율주 명성)도 16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

16일 원서를 마감하는 동학사 화엄승가대학원(원장 일초)은 연구비 지원을 비롯해 소임 시 장학금 혜택, 전문과정 2년 졸업 후 조교수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청암사 율학승가대학원장(원장 지형)도 졸업 후 조교수 자격과 행자교육원 습의사 자격 등이 부여된다.

사찰 승가대학과 대학원의 특전 제공에 대해 조계종 교육부장 진각 스님은 “출가자가 줄어들다보니 사찰 승가대학 등이 미래 승가인재에 대한 투자를 하며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사찰 승가대학에서 장학혜택을 확대하고 유학 지원을 하는 것은 한국 승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대에 맞는 미래 불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10회 불교상담사 자격고시 2월 25일

1월 20일까지 접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2월 25일 ‘제10회 불교상담심리사 자격고시’를 실시한다.

자격고시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치러지며 시험장소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과 종회분과회의실이다.

응시과목은 1급은 불교교리 및 역사 · 경전의 이해 · 학습심리학 · 심리검사 등 10과목이며, 2급은 불교교리 및 역사 · 불교상담 · 상담심리학 · 발달심리학 등 5과목이다. 전문가의 경우 불교교리 · 불교상담 · 명상과 심리치료 · 수행과 상담 · 인지행동치료 등 11과목이다.

원서접수는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www. kbcd.org)에서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1월 20일까지. 합격자는 3월 중 불교상담개발원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02)737-7378 **노덕현 기자**

朴 조기 탄핵 촉구하며 헌재 앞 ‘108배’

범불교시국회의 1월 4일 릴레이로… “탄핵 때까지”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불교계가 이번엔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박근혜 퇴진과 국민주권 수호 범불교시국회의(이하 범불교시국회의)는 1월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조기 탄핵 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범불교시국회의는 “헌재 재판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조기 탄핵을 인용하라”고 호소했다.



범불교시국회의 스님이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조기 탄핵을 촉구하며 108배를 올리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 법적 · 제도적 · 통치적 정당성을 모두 상실했다. 박근혜는 헌법 제1 · 7 · 10 · 11 · 15 · 23 · 67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죄(뇌물죄) 등 여러 법을 위반한 범법자”라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형해화해 이 땅을 ‘헬조선’으로 만든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 비판했다.

이어 “여당의원을 포함해 무려 234명이 탄핵소추결의안에 찬성했고 헌재 역시 사태의 중대함을 인식, 중도 성향의 강일원 재판관을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배당해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헌재 재판관들은 촛불 든 시민들이 왜 헌재 앞에 모이는지 깊이 숙고해야 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의 특권을 이용해 수사를 회피하고, 공범자와 부역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와 국민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들은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지극히 공정하게 심의하며, 조기에 탄핵을 인용해 이 나라를 혼란에서 구해야 한다. 우리 불자들은 이 정권서 억울하게 죽어간 청년, 노동자, 노인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자비심으로 새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대열에 나서고자 한다”며 “그 첫걸음이 조기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연 사실을 크게 지탄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은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서 세월호에 대해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했다. 어찌 그리 당당한지 몰염치하고 뻔뻔할 정도”라며 “이제는 국민들이 일상을 편히 살아야한다. 헌재는 빨리 결단해 국민 모두를 편안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성권 대한불교정년회 중앙회장은 “박 대통령은 기자들을 초청해 반성 없는 변명만 늘어놨다”며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한편 범불교시국회의는 이날을 시작으로 탄핵소추안이 인용 결정될 때까지 매일 낮 12시 헌재 정문 앞에서 108배 릴레이 기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아름 기자**

자승 스님, 총무원 강남 이전 재강조

봉은사, 5일 성역화기금 10억 원 전달식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총무원 청사의 강남 이전에 대한 뜻을 재차 피력했다.

자승 스님은 1월 5일 봉은사가 총본산 성역화불사기금 10억 원을 (재)아름다운동행에 전달하는 자리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성역화불사는 부지매입 등 2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 최대 10여 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 “불사 마지막 단계선 전법회관에 있는 숙소, 불교신문, 총무원 등을 전부 봉은사 새 총무원 청사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자승 스님의 발언은 지난 2015년 11월 전법회관 내 중앙신도회 카페바라밀 개점식에서 처음 알려졌다. 성역화불사에 따라 전법회관을 헐게 되면 現총무원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기관 및 단체를 입주시키고, 봉은사 옆 예식장을 새 총무원 청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자승 스님은 또 한전부지 환수를 위해 봉은사를 주축으로 종단이 힘을 모아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한전부지 현대차그룹 신사옥 건립계획으로 봉은사가 가장 큰 위협을 받는 만큼 수행환경 보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한편 성역화불사기금 전달식에는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과 한원덕 봉은사 신도회장 등 신도회 임원이 참석했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봉은사는 1월 5일 아름다운동행에 성역화 기금 10억 원을 전달했다.

관음종 소원성취 기도전화 개설

새해부터 운영, 무료 이용



대한불교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이 2017 정유년을 맞아 새해 소원 성취기도를 전화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피플링크의 후원으로 제작된 이 ARS전화는 새해 소원 성취기도를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 전화(1644-7799)를 걸면 기도가 가능하다.

아울러 음성으로 소원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음력 정월 초하루, 정월 대보름 등에 축원을 올림으로써 부처님의 자비가 더욱 가득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축원 후에는 당사자에게 축원기도 알림 문자를 회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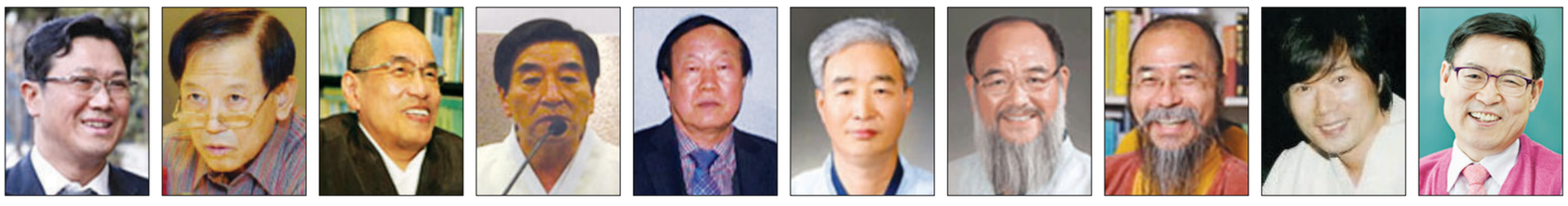
관음종 측은 “불교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및 젊은층이 불교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에 매진할 계획”이라며 “지난 동지를 맞아 소원성취 기도 전화를 시범 운영했으며, 새해 첫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소원성취 기도 전화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원성취 기도 전화는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동국대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제4기 모집


석하 소재학 박사 / 동양 미래학자, 미래예측학 박사 1호
명리학자 (공식전공 사주명리학 박사 1호)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최고위과정 주임교수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명리미래예측전공 주임교수
재)하원정미래학회 회장, 글로벌융합인재포럼 회장
미래융합인재아카데미(FCA) 원장, 동양미래예측연구소장
서울신문 STV그룹 고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문위원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및 발전위원장, Earist University 학장 역임

대한민국 易學, 사주명리학 최고 교수진!!

대한민국 역학계 명문파 장문, 최고 실력자, 최고 권위의 교수님들과 함께 하는 아주 특별한 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사주명리학, 풍수지리, 주역, 관상 등 기존의 역학에서 미신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배제하고 합리적 이론체계로 정립되고, 검증된 역학, 동양미래예측학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동양미래예측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수님들과 과정생들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졸업 후에도 원우회와 동문회 활동 등 멘토와 멘티로서, 혹은 동반자로서 소통과 융합을 통해 이 시대 역학계, 동양미래예측학계를 이끌어 갈수 있는 인재 양성 과정!! 자신의 학문에 대한 현위치 파악 및 역학계 위상정립!! 더 이상 찾아 헤멜 필요 없습니다.



미래예측학박사 1호 소재학교수(주임교수), 박청화교수, 꼴관상 신기원교수, 학선 유래웅교수, 백민교수, 정창근교수, 최명우교수, 노승우교수, 조규문교수, 이상광교수, 박성희교수, 문봉 박재범교수, 정경연교수, 신석우박사, 내정법 김인순박사, 명리학과 한의학의 만남 김민재박사, 박용남교수, 샤머니즘박물관장 양종승박사 외
〈특강교수〉 미래특강-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전 국무조정실장, 장관), 가수 김태곤박사, 최면 NLP상담기법 설기문교수, 멘탈리스트 이진규소장 외

대 상 명리학 초중급자, 현업 종사자, 역학, 명리, 풍수, 관상 교수 및 강사(학력무관)
일 정 2월23일~6월 22일, 매주 목(木)18:40~21:30/수료 후 2학기 심화과정 선택
자격증 문광부 등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가(소정의 절차)
-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 현대명리교육 상담사
입학식 2월 23일(목) 17:30~ 공개강좌 2월 9일 (목) 18:30 등록금 240만원
지원방법 FCA홈페이지(www.gfca.kr)입학지원서 다운받은 후 메일(gfca@daum.net) 발송
특 전 동국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동국대학교 FCA동양미래예측학 최고위과정 동문자격 / 원리를 알면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심화과정(FCA 현대사주학 석하명리 최고지도자과정)

※장소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www.gfca.kr ※문의 : 02-3443-4984 ※등록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663788 예금주 : 동국대